

영 화

배우야? 감독이야?

구혜선·유지태·정우성 “연기만으로 만족 못해!”
이종필·김태용·장진 감독, 주·조연급 완벽 연기



정우성



유지태

구혜선

‘연기하는 감독, 메가폰 잡는 배우.’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조승우에게 뮤지컬과 영화계 양쪽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뮤지컬 쪽에서 그가 택한 작품은 ‘지킬 앤 하이드’. 명성대로 자신의 출연분을 단 몇 분만에 매진시키며 티켓파워를 과시한 그가 택할 ‘영화’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조승우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텔런트 출신 구혜선이 메가폰을 잡은 ‘복숭아 나무’를 컴백작으로 확정할 것. ‘복숭아 나무’는 삼쌍둥이 형제가 겪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물로 조승우의 쌍둥이 형제 역은 류덕환이 맡았으며 남상미와 최다니엘 등도 출연한다. 드라마 ‘열아홉 순정’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했던 구혜선은 2008년 단편영화 ‘유쾌한 도우미’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감독으로서의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첫 장편영화 연출자 ‘요술’의 메가폰을 잡았던 그는 ‘복숭아 나무’ 제작을 위해 ‘구혜선 필름’을 설립했다.

세계 3대 국제 단편영화제 중 하나인 글래르몽페랑 영화제에 초청됐고, ‘나도 모르게’(2008)는 제5회 쇼트소스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 유지태는 지난해 자신의 단편을 모은 DVD 컬렉션을 내놓기도 했다. ‘태백산맥’ 등에 출연했던 연기와 배우 방은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연기자 출신 감독이다. ‘오로라 공주’를 통해 상업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던 방은진은 엄정화의 새로운 면을 이끌어 내는 등 뛰어난 감각을 선보였다.

현재 한창 시나리오 작업중인 차기작 ‘이화’에 월백하고’는 조선시대 10대 소녀 과부들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정우성 역시 영화감독을 꿈꾸는 배우 중 한 명이다. 정우성은 가수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와 ‘모르죠’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했고 2002년 제1회 미쟈넷 단편영화제에 상영된 단편영화 ‘LOVE b(플러)’을 제작했다.

감독 출신 배우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영화 ‘아저씨’에서 노형사로 분한 이종필은 ‘불을 지퍼라’, ‘달세계 여행’ 등 단편 영화로 이름을 떨친 감독이다. 장편 연출을 준비하며 간간히 연기자로도 활동하던 그는 ‘악탈자들’을 통해 배우로 먼저 주목받게 됐다.

양익준은 감독 데뷔작 ‘똥과리’에서 연출과 주연을 병행하며 1인 2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똥과리’ 수선차려 세계영화제에 초청받은 그는 라스팔마스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개봉한 ‘집나온 남자들’에서는 지진희, 이문식과 함께 주연으로 캐스팅돼 만만찮은 연기력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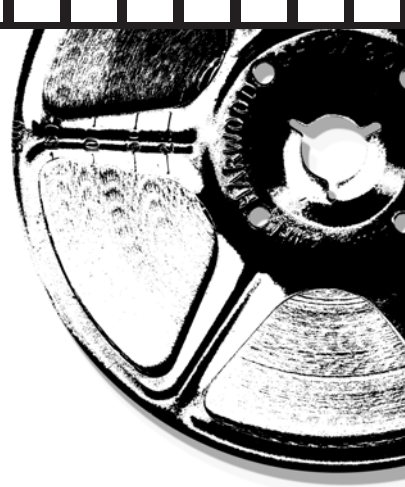
‘가족의 탄생’, ‘만추’의 김태용 감독도 지난해 연기자로 깜짝 변신했다. 그는 올니버스 영화 ‘동백꽃’의 ‘동백 아가씨’ 편에서 현수역을 맡아 자연스러운 통역에 연기를 선보였다.

장진 감독은 ‘킬러의 수다’ 등 자신이 연출하는 영화에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장 최근작인 ‘퀴즈쇼’에서는 형사 역으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았다.

영화배우로,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창정도 내년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첫 연출작은 현역 기자를 모델로 쓴 사회부기자의 로맨스를 담은 작품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썼으며 주연으로도 출연할 예정이다. 배우 출신 감독들도 무대를 나타내고 있는 또 한 명은 유지태다. ‘동감’ ‘봄날은 간다’ ‘올드보이’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유지태는 2003년에 메가폰을 잡은 ‘자전거 소년’이 제20회 부산 아시아 단편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으며 무대를 나타냈다.

이후 ‘장님은 무슨 꿈을 꿀까요?’(2005)로



이종필 감독



김태용 감독



장진 감독

새 영화

컨트롤러

전도 유망한 정치인 데이빗 무용수 엘리와 사랑에 빠지고 미래를 조작하는 단체 조정국 그들을 갈라 놓으려 하는데~

미리 정해진 운명을 꺾어가려는 이들의 고군분투를 그린 SF 액션 스릴러물이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 생명 위기에 몰린 데이빗은 무용수 엘리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조정국’이라 불리는 단체의 사람들은 데이빗이 사랑에 빠지면 정치에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려 한다. 조정국은 전세계 인간들의 삶을 조정하며 미래를 정해진 공식대로 흐르게 만드는 존재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데이빗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인물에게 돌의 사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조정국 사람들의 감시에서 벗어나 운명을 건 도주를 시작하는 데이빗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블레이드 러너’, ‘마이너리티 리포트’, ‘토탈리얼’ 등 할리우드 영화에 원작을 제공한 필립 K.딕의 단편 ‘조정팀’(Adjustment Team)을 모티브로 했다.

‘본 아이덴티티’ 등 ‘본 시리즈’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보인 맷 데이먼이 이번 작품에서도 뛰어난 액션 연기를 보여주며 연인 엘리 역으로 에밀리 블런트가 출연한다.

‘센티넬’, ‘본 얼티메이텀’의 각본을 쓴 조지 노피 감독의 데뷔작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텔런트 구혜선 각종 영화제서 연출력 인정받아
차기작 ‘복숭아 나무’ 조승우·남상미 등 출연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 상무점 | 항토사랑 영화사만 | 하남점 |
|-------------------------------|-----------|---------------------------------|
| 1관 블랙스완 (18세) | 클롬버스시네마 | 1관 일파연오매가3D (전제) / 아이엠넘버포 (12세) |
| 2관 혈투 (15세) / 만추 (15세) | | 2관 조선명탐정 (12세) |
| 3관 조선명탐정 (12세) | | 3관 컨트롤러 (15세) |
| 4관 아이엠넘버포 (12세) | | 4관 라퐁젤3D (전제) / 만추 (15세) |
| 5관 메카닉 (18세) / 언노운 (15세) | | 5관 블랙스완 (18세) |
| 6관 일파연오매가3D (전제) / 컨트롤러 (15세) | | 6관 아이들 (15세) |
| 7관 컨트롤러 (전제) | | 7관 메카닉 (18세) / 혈투 (15세) |
| 8관 리멤버미 (전제) | | 8관 리멤버미 (15세) |
| 9관 랭고 (전제) | | 9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
| 10관 아이들 (15세) | | 10관 랭고 (전제) / 아이들 (15세) |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컨트롤러 (12세) 최고급관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아이엠넘버포 (12세)
4관 일파연오매가 (전제) / 언노운 (15세)
5관 아이들 (15세)
6관 만추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7관 리멤버미 (15세)
8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 랭고 (전제)
9관 메카닉 (18세)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아이들 (15세)
2관 아이엠 넘버 포 (12세)
3관 그대를 사랑합니다 (15세)
4관 랭고 (전제) / 메카닉 (18세)
5관 리멤버미 (15세)
6관 언노운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7관 블랙스완 러18세)
8관 컨트롤러 (12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